2013210061 채윤병

봄이 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캠퍼스에서 호감이 가는 이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에 든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지는 않는다. 여자는 자기의 몸을 지켜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어릴 때의 성교육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가기가 부끄럽다고 느낀다.

하지만 필자는 사랑에 있어서 부끄러움은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어리가 자신이 램피언처럼 순수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과 램피언이 메어리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부끄러움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그 사람에 대한 동경이나 배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사랑을 시작함에 있어 부끄럽지 않다면 용기의 소중함은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는가?

오래된 커플은 서로 닮는 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필자는 이를 부끄러움 때문이라 생각한다. 메어리는 신발까지 벗어 던지며 순수함의 길로 접어들었고, 램피언은 돈을 벌기 위해 훈장이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램피언은 서로 이해하며 닮는 것을 커다란 심연이 있을 지도 모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생활이라고 표현하는데 필자는 이 표현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자신을 힘들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마냥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만 알았던 나의 착각을 깨부수는 표현이었다. 사랑은 우리를 병들게 할지도 모른다. 아마 숱한 싸움으로 지친 램피언과 메어리같은 연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는 법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에 대한 나의 답은 상대방을 사랑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소홀히 할 필요는 없다. 아마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거나, 누가 나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면 아마 사랑의 끝은 비참하지 않을까?

사랑은 집과 집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이지 두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두 인생의 교감이다. 아마 새로운 인생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램피언과 메어리처럼 싸움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소망하는 사랑은 용기를 낼 줄 알며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알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한결 같은 사랑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